

10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 증시, 은행·기술업종 `간판株`에 달렸다	이번주(12~16일) 뉴욕증시는 다양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3분기 어닝시즌 2주차에 맞이하러 예정. 특히 이번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은행업종 대표주와 인텔, IBM, 구글 등 기술업종 핵심종목들이 실적을 내놓음. 수요일부터는 소매판매, 소비자물가, 제조업, 소비자심리 등 주요 섹터의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 종료로 9월 소매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뉴욕과 필라델피아지역의 10월 제조업 경기와 9월 산업생산도 전월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주 뉴욕증시의 향방은 사실상 기업들의 3분기 `어닝`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님. 더욱이 이번주에는 은행과 기술업종의 대표 주자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음. 이들이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때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뉴욕증시는 이번주 8개월 연속 상승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 반대로 경우 시장의 `김`이 적지 않게 빠질 수 있음.
소매지표 2% 이상 감소 예상	경제지표는 수요일부터 발표됨. 우선 9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 이상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전월에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2.7%나 증가했지만, 이같은 지원책이 9월에는 없었기 때문임.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은 중고차를 연료 효율이 좋은 신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고 4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운용됐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2~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월의 증가세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요일 오후에 발표되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경제연건 개선에 대한 힌트를 보여줄 전망이다.
제조업·산업생산 지표 `주춤` 예상	목요일에는 뉴욕지역과 필라델피아지역의 10월 제조업 지표가 한꺼번에 발표됨. 두 지역의 제조업 지표는 경기위축과 확장의 기준인 `0`을 웃돈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전월보다는 미흡할것으로 보임. 예컨대 뉴욕지역의 제조업 경기지표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18.9에서 17.8로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14.1에서 12 안팎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됨. 목요일 주식시장 개장전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 서로 맞서고 있음. 금요일에 대기하고 있는 9월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나, 증가폭이 전월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임.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달러반등 불구 상승..71달러	국제유가가 9일(현지시간) 소폭이나 오르며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음. 미 달러 반등이 부담이 됐지만 경기회복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8센트(0.1%) 소폭 오른 71.77센트로 거래를 마쳤음. 국제유가는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긴축 관련 발언으로 미 달러화가 반등세로 돌아선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그러나 경기회복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유가는 장중 오름세로 전환, 결국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음. 특히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근래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온 뉴욕증시가 개장초 약세에서 벗어나 반등세를 보인 점도 원유시장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 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년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음.
弱달러 사는 와타나베 부인..또다른 매도 촉매?	최근 달러가 급락하는 와중에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면서 향후 `추가 매도의 잠재적 촉매`로 지목받고 있음.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 강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음. 도쿄금융거래소에서 엔화 대비 달러 순매수 포지션은 17억달러로 약 3주전보다 세배나 급증하면서 직전 최고치인 2007년7월 24일의 15억달러를 넘어섰음. 달러-엔은 지난 7일 88.01엔까지 밀리며 8개월보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심리적인 저항선인 88엔선 밑으로는 밀리지 않고 일단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 시장 참가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로 달러-엔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했고, 워낙 이들의 달러 매수 수요가 강해 당분간 엔화 강세 압력을 막아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 달리 엔화가 강세를 지속할 경우 또다른 달러 매도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달러를 매수한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들로 불리는 일본의 FX마진 트레이더들로 지난 3월 이후 관련 계좌 보유자들이 55.3%나 증가했음.
해외펀드 20일째 자금 유출..`역대 최장 환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20일째 자금이 빠져나갔음. 이는 지금까지 가장 긴 환매행렬임.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해외주식형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172억원이 빠져나갔음. 지난 달 10일부터 시작된 유출행진은 이날까지 20일 연속 지속됐다. 이 기간 동안 총 4210억원이 순유출됐음.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원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나 지난해말이나 연초에 해외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투자자 중심으로 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투자비중이 높은 중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어 중국 펀드쪽에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4분기에는 해외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같은 환매행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